

The Economy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10. 2

9월 미국 ISM 제조업: 되살아난 주문, 다시 커진 물가 부담

해외채권/크레딧 | 박지빈 | jibin@ls-sec.co.kr

신규주문 반등에도 제조업 확장 속도는 보합

9월 미국 ISM 제조업 PMI는 54.5로 시장 예상치(55.0)와 전월치(54.6)를 소폭 하회했으나, 9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상회했다. 신규주문은 53.7→55.3으로 반등했고 수주잔고도 51.8→56.4로 큰 폭 상승하며 8월 약화됐던 수요 모멘텀은 회복됐다. 고객재고는 42.8→41.6으로 추가 하락하며 '낮은 수준(Too Low)'을 이어가 향후 생산에도 우호적인 여건이 유지됐다. 다만 신규주문 관련 긍정·부정 응답 비율은 8월 2.0:1에서 9월 1.7:1로 낮아져 실제 주문지표 개선과 달리 기업들의 수요 전망은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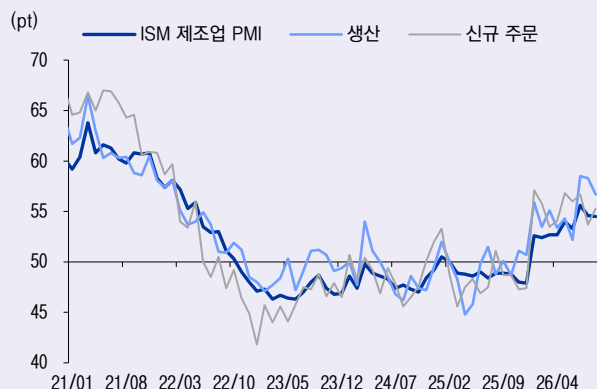
주문 회복 속 가격 압력은 재차 확대

고용지수는 51.2→52.7로 상승하며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 반면, 가격지수는 71.1→77.9로 6.8pt 급등해 이란전쟁이 시작된 3월(78.3)에 근접했다. ISM은 철강·알루미늄 가격 상승과 수입품 관세, 중동 분쟁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주요 비용 압력 요인으로 지목했다. 가격 상승을 응답한 기업 비중도 46.2%→58.6%로 확대됐다. 신규주문과 수주잔고가 반등한 가운데 공급 측 가격 압력이 다시 확대되면서 제조업 경기 회복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나타났고, 연준의 물가 경계는 재차 확대됐다. 향후 관건은 높아진 투입 비용의 판매가격 전가다. 주문 증가가 이어지면 기업의 가격 인상 여력도 유지되는 만큼, 상품물가의 상방 위험과 고공리 지속 가능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AI 수요 지속, 공급 제약은 전자부품에서 철강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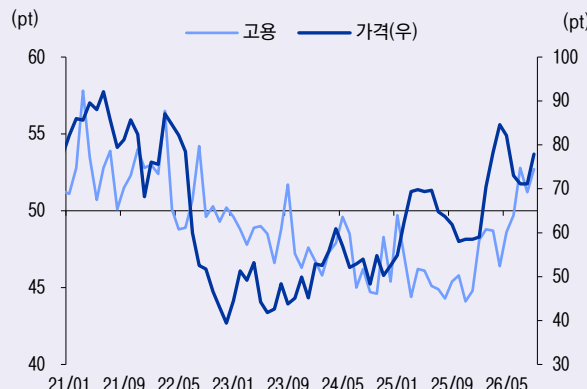
AI·데이터센터 관련 수요는 9월에도 제조업의 주요 성장축으로 작용했다. 기업들은 반도체·전자 부품의 주문이 다시 크게 늘면서 납기와 수주잔고가 동시에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데이터센터 호황으로 미국 내 철강 생산능력까지 압박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컴퓨터·전자제품과 기계 업종은 신규주문 증가 업종에 포함됐고 두 업종 모두 수주잔고가 확대됐으며, 전자부품은 19개월, 메모리는 9개월 연속 공급 부족 품목으로 집계됐다. 8월에는 AI가 대량 소비하는 부품의 공급망·가격 부담이 부각됐다면, 9월에는 강한 AI·데이터센터 수요가 전자부품을 넘어 철강 등 기초 소재의 생산능력과 비용까지 압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AI 투자 확대가 제조업 수요를 지지하는 동시에 공급망과 원가 부담을 확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림1 ISM 제조업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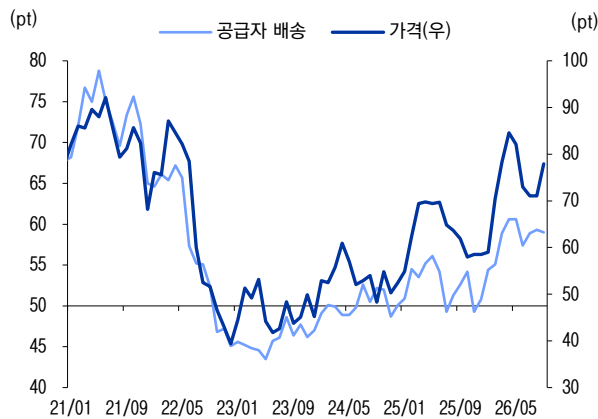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고용 및 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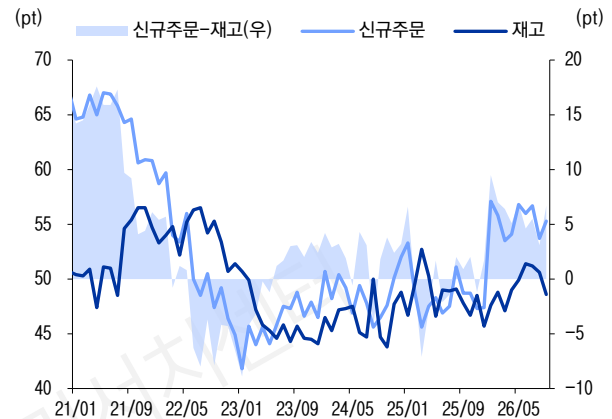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공급자 배송과 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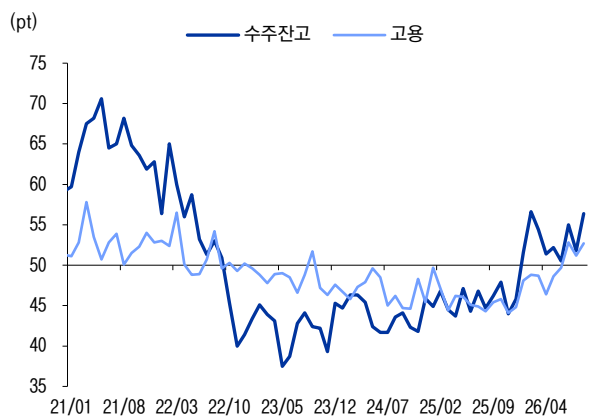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신규주문-재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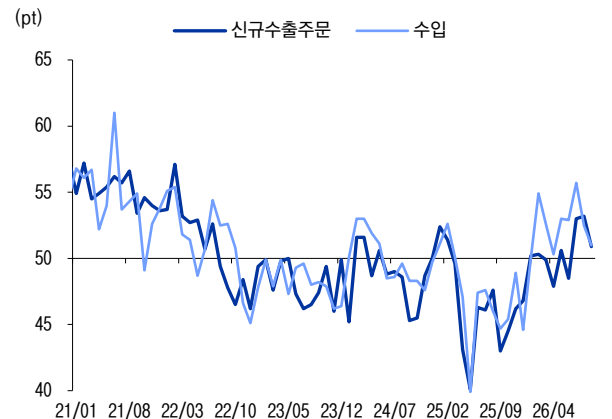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수요 개선의 고용 확산 여부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해외 수요와 글로벌 교역은?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지빈).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